

---

# 도시와 농촌 노인의 인지와 우울의 상관관계 연구

김미진\*, 한진숙\*\*, 권명진\*\*\*, 김영희\*\*\*

##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on and depression of urban and rural elderly people

Mijin, Kim\*, Jinsook Han\*\*, Myoungjin Kwon\*\*\*, Younghee Kim\*\*\*

**요 약**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노인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화에 따른 삶에 만족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은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노인 160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1년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의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계층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두 그룹간 인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232, p=.029$ ). 두 그룹 모두 인지와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도시노인( $r=.021, p=.860$ ), 시골노인( $r=-.131, p=.271$ )). 도시노인의 인지에 영향을 준 변수는 교육( $t=4.069, p<.001$ )과 나이( $t=-2.812, p=.001$ )였고, 농촌노인의 인지에 영향을 준 변수는 성( $t=-3.011, p<.001$ ), 연령( $t=-4.866, p<.001$ ), 교육( $t=3.525, p<.001$ )이었다. 이들은 각각 26.1%와 57.2%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환경의 차이에 따라 적합한 인지 및 우울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 인지, 우울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that would be helpful in planning mental health programs designed to help elderly people have a satisfying life as an elder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cognition of urban and rural elderly people. Methods: Subjects included 160 elderly people on Daejeon and Geumsam.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from march 2, 2011 to July 30,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SPSS 18.0 program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Resul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gnition was observed between two groups( $t=-2.232, p=.029$ ). Cognition & depression didn't have correlation(urban area( $r=.021, p=.860$ ), rural area( $r=-.131, p=.271$ )).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cognition included education( $t=4.069, p<.001$ ) and age( $t=-2.812, p=.001$ ) in urban area and sex( $t=-3.011, p<.001$ ), age( $t=-4.866, p<.001$ ), education( $t=3.525, p<.001$ ) in rural area. These factors explained 26.1% and 57.2% of the variance.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development of appropriate nursing strategies depending on the difference of the environment to increase cognitive function and to decrease the incidence of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Key Words** : Elderly people, Cognition, Depression

---

### 1. 서론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범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12.9%로써 이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에는 25%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4].

노인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한 연령층의 인구증가 차

---

\*해천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제 1저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해천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논문접수: 2012년 12월 14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1월 7일, 확정일: 2013년 2월 20일

원을 넘어 사회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화과정에서 초래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지기능의 감소이다. 인지기능 감소는 생활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주위의 간병 또는 간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23, 24]. 이러한 인지기능장애의 대표질환인 치매의 유병률은 그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997년 65세 이상 노인의 8.3%였으며 2010년에는 8.6%, 2020년에는 9%로 증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24]. 유병기간의 증가로 인해 날이 갈수록 치매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원인적인 치료보다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치매관리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16].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소득의 감소, 건강의 악화, 열악한 의료 환경,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 비율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로 고독과 소외감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15]. 이렇듯 도시와 농촌 등의 환경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도시와 농촌 노인의 인지기능을 비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인지기능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관련이 있는 변수들에 관한 조사연구[13, 18, 19]나 운동을 비롯한 활동요법이 인지에 주는 영향을 연구한 실험연구[5, 12, 20]가 대부분이다.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으나 그 대표적인 것이 우울이다. 우울은 인지기능 장애 노인의 40~50%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며 우울과 인지기능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2, 3]가 있기는 하나 오병훈 등(1998)의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대상자의 인지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울을 비롯한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도시와 시골노인에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와 건강을 위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지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인지와 우울에 관한 노인의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 노인의 정신건강상태인 인지기능과 우울을 측정하여 노인간호 과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인지와 우울 차이를 파악한다.
- 3)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우울의 상관관계 여부를 파악한다.
- 4)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 노인의 인지와 우울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3.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인지기능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 24점 미만 이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전광역시 노인 100명, 충청남도 금산군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설문지 40부를 제외하고 총 160부(80%)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설문과정 중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것과 연구대상자는 익명으로 처리 된다는 내용을 설문 전 미리 공지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62세 이상의 노인
- 2)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자
- 3) 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4) 치매 및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험이 없는 자

### 3.3 연구 도구

#### 1) 우울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GDSS)를 정인과 등(1997)이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아니오의 양분척도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4~18점 사이는 경도의 우울증, 19~21점 사이는 중등도 우울증, 22점 이상은 중증 우울증으로 분류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이었고, 원정숙, 김정화(2003)의 연구에서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 2) 인지

박종한, 권용철(1989)에 의해 개발된 MMSE-K를 사용하였다. 감수성은 94.3%, 특이성은 87.5%로 타당도가 보고된 한국노인의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이 도구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은 각각 5점, 기억등록 3점, 주의집중 및 계산 5점, 기억회상 3점, 언어 및 판단력 9점의 영역을 사정하는 총 12문항 30점 만점의 측정도구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24-30점은 확정적 정상, 20-23점은 치매의심, 19점 이하는 확정적 치매를 의미한다. 주애란, 박상하(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 3.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수집방법은 먼저 보건소를 방문하여 사전에 실시한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24점 미만인 노인들을 파악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방문 노인 및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비위해성 및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고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구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서면동의 후 대상자는 직접 작성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연구보조자가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작성 후 연구보조원이 직접 수거하였으며, 작성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 3.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인지, 우울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2)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인지와 우울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 3)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인지와 우울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4)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인지의 영향 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나타난바와 같이 남자는 49명(30.6%), 여자는 111명(69.3%)이었으며 나이는 71~80세가 89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은 6년 이하가 132명(82.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도시노인의 75%에 비해 농촌노인의 경우 90%로 두 그룹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Categories        |        | Urban area<br>N(%) | Rural area<br>N(%) | Total<br>N(%) | $\chi^2$ or t | p    |
|-------------------|--------|--------------------|--------------------|---------------|---------------|------|
| Sex               | Male   | 22(27.5)           | 27(33.8)           | 49(30.6)      | -.897         | .372 |
|                   | Female | 58(72.5)           | 53(66.3)           | 111(69.3)     |               |      |
| Age(yr)           | ≤70    | 17(21.3)           | 19(23.8)           | 36(22.5)      | -.320         | .750 |
|                   | 71~80  | 48(60.0)           | 41(51.3)           | 89(55.6)      |               |      |
|                   | 81≤    | 15(18.8)           | 20(25.0)           | 35(21.8)      |               |      |
| Education<br>(yr) | ≤6     | 60(75.0)           | 72(90.0)           | 132(82.5)     | 2.808         | .006 |
|                   | 7~12   | 17(21.3)           | 8(10.0)            | 25(15.6)      |               |      |
|                   | 13≤    | 3(3.8)             | 0(0)               | 3(1.8)        |               |      |

\*p<.05

### 4.2 인지, 우울의 정도

인지는 <표 2>에 나타난바와 같이 도시노인의 경우 18.48(3.99), 농촌노인은 16.83(4.55)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2.232$ ,  $p=.029$ ). 우울은 도시노인의 경우 15.05(7.47), 농촌노인은 16.51(6.5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406$ ,  $p=.164$ ).

〈표 2〉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의 인지와 우울 차이

n=160

| Categories | Urban area<br>Mean(SD) | Rural area<br>Mean(SD) | t      | p    |
|------------|------------------------|------------------------|--------|------|
| Cognition  | 18.48(3.99)            | 16.83(4.55)            | -2.232 | .029 |
| Depression | 15.05(7.47)            | 16.51(6.51)            | 1.406  | .164 |

### 4.3. 인지와 우울의 상관관계

〈표 3〉에 나타난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노인 모두에서 인지와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의 인지와 우울의 상관관계

n=160

|           |            | GDS                 |       |
|-----------|------------|---------------------|-------|
| Cognition | Urban area | Pearson Correlation | .021  |
|           |            | Sig.(2-tailed)      | .860  |
|           | Rural area | Pearson Correlation | -.131 |
|           |            | Sig.(2-tailed)      | .271  |

### 4.4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인지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일반적 변수,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와 농촌 노인 모두의 경우에서 오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9로 비교적 2에 가까워 오차항의 독립성 및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었다.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07-.47, .12-.44로 나타났고, 공차한계는 .85-.97, .65-.80로 모두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02-1.16, 1.26-1.53으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표 4〉에 나타난바와 같이 도시노인의 경우 일반적 변수 중 교육( $\beta=.445, p<.001$ )과 나이( $\beta=-.295, p<.006$ )는 인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감정노동에 대해 26.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의 경우 일반적 변수 중 성( $\beta=-.263, p=.004$ ), 나이( $\beta=-.426, p<.001$ )와 교육( $\beta=.354, p=.001$ )이 인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은 감정노동에 대해 57.2%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도시와 농촌지역 노인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60

| Group            | Variables        | B        | $\beta$ | T     | p    | R <sup>2</sup> | F     | p    |
|------------------|------------------|----------|---------|-------|------|----------------|-------|------|
| Total Group      |                  |          |         |       |      | .261           | 7.27  | .000 |
|                  | Urban area group | Constant | 29.724  |       | 5.83 | .000           |       |      |
|                  | Education        | .371     | .445    | 4.06  | .000 | .235           | 25.23 | .000 |
|                  | Age              | -.162    | -.295   | -2.81 | .006 | .128           | 12.59 | .001 |
| Rural area group | Total Group      |          |         |       |      | .572           | 24.67 | .000 |
|                  | Constant         | 39.821   |         | 8.06  | .000 |                |       |      |
|                  | Sex              | -2.512   | -.263   | -3.01 | .004 | .161           | 1.607 | .000 |
|                  | Age              | -.270    | -.426   | -4.86 | .000 | .370           | 45.63 | .000 |
|                  | Education        | .495     | .354    | 3.52  | .001 | .430           | 58.24 | .000 |

## 5.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와 우울을 조사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시와 농촌노인의 인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우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애란, 박상하(2004)는 도시에 비해 농촌은 의료서비스가 더 부족하고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더욱 많이 증가하므로 이로 인해 농촌노인의 인지기능이 도시노인에 비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두 그룹 간 학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최미선(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지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근 농촌 지역은 해가 거듭될수록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소득의 감소, 급속한 건강의 악화, 열악한 의료환경, 고독과 소외감 증가 등이 가속화되므로[16], 인지기능은 감소하고 우울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지와 우울 중재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우울정도와 인지기능 상태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21]가 있기는 하나, 많은 연구결과들[1-3, 9]이 우울 정도와 인지기능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도시와 시골 인구를 함께 조사한 것 그리고 시설노인이 아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 등의 대상자들의 문화적인 차이와 조사원이 각각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된 조사과정 등의 방법적인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최초의 인지기능검사에서 24점미만의 경도 인지장애 대상자들로서 두 번째인 본 연구에서 좀 더 잘 대답하려는 의지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인지에 영향을 주는 더 많은 환경적인 변수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며 반복적인 추후인지검사도 요구된다.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원정숙과 김정화(2003)와 이민수 등(2000)의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인지는 교육과 나이에 영향을 받았으나 성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애란, 김혜원(2011)의 연구결과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나이, 교육 등이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의 유병률이 높아지므로 인지기능감소 가능성이 커지고,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문화적인 경험과 여가 생활 등의 차이를 발생[15]시키므로 이로 인해 인지기능이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다만 농촌노인의 경우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농촌여성노인의 경우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은 강한 반면 사회적지지, 스트레스관리, 대인관계 등은 도시여성노인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1].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농촌노인의 경우에서 81세 이상 연령이 25%로 도시노인의 18.8%에 비해 높았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의 이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라도 인지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인지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정신건강문제가 중요한 노인 간호문제가 되고 있음을 재인식하고 만족스러운 노년기 삶의 영위에 도움이 되고자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인지와 우울의 상관관계 및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1년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해 실시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두 그룹간 인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그룹 모두 인지와 우울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노인의 인지에 영향을 준 변수는 교육과 나이였고 26.1%를 설명하였다. 농촌노인의 인지에 영향을 준 변수는 성, 연령, 교육이었고 57.2%를 설명하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인지의 유지, 증진과 우울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맞는 체계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인지에 영향을 주는 좀 더 많은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좀 더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지와 우울에 대한 추가 연구와 다양한 생활환경에 따른 인지와 우울의 차이를 추가 연구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권영은, 김연숙, 서길희(2006). 일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노인간호학회지, 8(2), 161-169.
- [2] 김명아, 김현수, 김은정(2005). 서울 일지역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노인간호학회지, 7(2), 176-184.
- [3] 김성윤(2004). 치매에서의 우울증, 대한치매학회지, 3(1), 18-23.
- [4] 박종환, 권용철(1989). 노인용 한국판 Mini-Mental State Examination(MMSE-K)의 표준화연구-제 2편: 구분점 및 진단적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29(3), 509-513.
- [5] 송영주, 이근매, 김기보(2012). 소조중심 집단미술 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 치료연구, 8(3), 23-45.
- [6] 양승애(2012). 일 대도시 여성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1), 158-173.
- [7] 오병훈, 김현수, 김정훈, 조항석, 조경혜, 조현상, 유계준(1998). 한국 한 농촌지역의 노인성 인지장애 및 우울증상 역학조사, 노인정신의학, 2(2), 176-186.
- [8] 원정숙, 김정화(2003).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2(2), 149-154.
- [9] 이기령, 이경주, 양수(2009). 가정간호서비스가 만성 질환 재가노인의 신체건강, 인지기능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3), 251-259.
- [10] 이민수, 최윤경, 정인파, 광동일(2000). 한국 어느 도

시지역의 노인성 우울증 역학조사, 노인정신의학, 4(2), 154-163.

- [11] 이지윤, 윤순녕(2005). 도시와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 비교,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6(1), 13-22.
- [12] 이청무, 이난희(2012). 복합운동이 여성노인의 신경영양성인자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6(1), 173-189.
- [13] 이현주, 강상경(2011). 노년기 인지기능과 우울증상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179-203.
- [14] 정인과, 광도일, 조숙행, 이현수 (1997).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 표준화연구, 노인정신의학, 1(1), 61-72.
- [15] 주애란, 김혜원(2011). 일 보건의료소 관할 지역 노인의 건강 관련 특성, 우울, 사회적 지지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13(2), 154-162.
- [16] 주애란, 박상하 (2004). 농촌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6(1), 27-37.
- [17] 최미선(2012). 재가노인의 사회적지지, 인지기능 및 우울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최영미(201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하은호, 박경숙(2011). 재가치매노인의 인지장애 영향 요인, 기본간호학회지, 18(3), 317-327.
- [20] 홍승연(2012). 8주간의 개별화 운동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신체기능, 수행능력,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9(3), 352-361.
- [21] Kafonek et al. Instrument for screening for depression and dementia in a long-term care fac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1989; 37: 29-34.
- [22]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L, Lum O, Huang V, Adey M, Leirer V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983; 17(1): 37-49.
- [23] Youn G., Knight B., Jeong H. & Benton D. Differences in familism values and caregiving outcomes among Korean, Korean American and White dementia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1999; 14(1): 355-364.
- [24] www.kostat.go.kr/wsearch/search.jsp

### 김미진



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가족간호
- E-Mail : [mjkim@hu.ac.kr](mailto:mjkim@hu.ac.kr)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1년 9월~현재 : 해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한진숙



### 권명진



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노인간호
- E-Mail : [mjkwon@hu.ac.kr](mailto:mjkwon@hu.ac.kr)

- 2001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5년~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미혼모
- E-Mail : [jshan@kongyang.ac.kr](mailto:jshan@kongyang.ac.kr)

- 199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4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현재 : 해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김영희



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건강증진
- E-Mail : [kimyh@hu.ac.kr](mailto:kimyh@hu.ac.kr)

- 199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199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5년 3월~현재 : 해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